

분과별 심포지엄 참관기

The Sectional Report of the 39th Korea-Japan Professional Engineer Symposium

제5분과

영어 발표



글 | 沈淳輔
(Shim, Soon Bo)

수자원개발/국제기술사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주)이산 상임 고문

E-mail : shimsb2100@dreamwiz.com



▲ 제5분과 분과진행하는 좌장 및 공동좌장

제5분과는 영어로 발표하는 분과로 자유주제로서, 비교적 젊은층의 발표가 핵심을 이루었다. 제5분과의 한국측 좌장은 필자가, 일본측 공동좌장은 伊藤 澈(건설/종합기술감리역)가 맡았다.

발표는 한국측 2인(어재홍, 차순철)과 일본측 사토 미노루(齊藤 稔) 기술사와 야마사키 유키하루(山崎幸治) 2인이 하였다.

첫째 발표는 한국측 (주)제이네트(Jcast Networks Korea, Inc.) 어재홍박사(J.H.Eu, Ph.D.,P.E.)가 “A Review of USN-based Architecture for Traffic Management”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두 번째는 일본측 FUJISEIKI CO., LTD의 사토 미노루 전무가 “A Report on the Symposium on 50th Anniversary of YEC IPEJ”란 주제로 발표 하였다.

세 번째 발표는 한국측 차스텍이앤씨(주)의 차순철대표(P.E.,Ph.D.)가 “한국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발전전략(A Build-up Strategy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n Korea)”에 관하여 발표 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발표는 일본측 MITSUBISHI HEAVY Ind.,LTD의 야마사키 유키하루 기술사가 “Development of Advanced Mechanical System for 3-D Full-Scale Earthquake Testing Facility”란 주제로 발표 하였다.

각 발표 마다 질의응답 및 토의 시간을 5분 정도 가졌다. 또한 총괄적으로 향후 제5분과의 효과적 운영과 한-일 기술사간 효율적 협력방안에 대하여 5분과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 시간을 가졌다.

첫째 발표한 한국 측 어재홍박사는“A Review of USN-based Architecture for Traffic Management”주제에 대하여,USN에 대한 정의와 관련기준 및 USN기술의 발전과정과 동향 및 Architecture, Sensor Node Tier, IPEN Tier, NM Tier에 대한 설명과 이들 기술의 실제 응용

에 관하여 설명 하였다. 응용분야로서는 무인주정차시스템, 효과적인 주차시설 관리 시스템, 무인 과속 차량 단속 시스템, 도로변 주차관리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 하였다.

두 번째 발표한 일본의 미노루 사토 기술사는 “A Report on the Symposium on 50th Anniversary of YEC IPEJ” 주제 발표에서 일본기술사회(IPEJ)의 Young Engineers Committee(YEC)는 1959년에 발족하여 2009년이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 하였으며 심포지엄의 주제는 「Succession of the technology and warning to the future」이었으며, 일본기술사회 다카하시 오사무(高橋修) 회장은 축사에서 “일본 청년 기술사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세 번째 발표한 한국측 차순철 박사의 “A Build-up Strategy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n Korea”에 대한 발표의 주된 내용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의 정의, 세계 각 주요 국가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중, 한국, 일본, 영국, 미국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증심사 내용과 인증심사로 인한 영향에 관하여 설명 하였다.

네 번째 발표한 일본측 Yukiharu Yamasaki 는 “Development of Advanced Mechanical System for 3-D Full-Scale Earthquake Testing Facility”에서 일본은 그동안 Seismic Design은 완벽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나, 1995년 1월 17일 Hanshin-Awaji District의 대지진과 Hyogoken-Nambu지진을 격고난후 일본의 NIED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Earth Science & Disaster Prevention는 3차원 실물규모의 방진시험장치(3-D Full-Scale Earthquake Testing Facility for the disaster prevention of earthquake : E-

DEFENSE)개발에 착수 하였고, 이에 대한 핵심 부분인 고도정밀 H-Actuator 와 V-Actuator 및 3차원 조인트(3D-Joint)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는 필자가 지금까지 참가한 한-일간의 공동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고도정밀기술이 포함된 상세한 기술개발 과정과 성과를 공개한 것으로, 한-일 공동심포지엄의 향후발전방향 정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발표자료를 사전에 주최측에 제출치 아니 하였고 또한 참가자들에게 공람(발표문집상)시키지 않아 회의진행상 다소간 불편 하였다.

심포지엄 제5분과 발표를 마친 후, 배정된 시간적 여유가 있어, 5분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할 수 있었다.

참석한 모든 분들께 5분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유도 한바, 대부분 신기술 개발, 및 한-일 공동/협동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어 5분과를 구성 하자는 의견을 피력하는 자가 많았다.

향후 한-일 공동 심포지엄의 제5분과는 한-일 청년 기술사들 중심으로, 창의적 신기술 개발과 성과에 대하여 진솔한 논의의 장이 형성되어 한-일간의 기술 협업시대를 촉진 할 수 있기를 기원 한다.

〈원고접수일 2009년 12월 21일〉



▲ 제5분과 발표 전경